11. 30. 현소강

정오의 사이렌 장면

: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우리가 창작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상은 작품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문장 쓰고 지우고 하면서 세밀하게 쓰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세밀함을 읽어줄 가치가 있을 거야.

이상이란 사람은 글을 참 잘 쓰죠. 그리고 오감도의 세계관이 여기도 등장한다. 유리, 강철 이렇게 한 다섯 가지가 언급된다. 이 다섯가지는 근대 문명의 기초 요소들이다. 이 사람에게는 건물이든 뭐든 다 이 근대의 기본 원소들로 분리되어서 보인다. 거리, 건물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분쇄해서 보는 것. 강철이 건물의 기초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근대이다. 이상의 감각이라는 게 거의 본능적인 감각인 듯. 모던의 현상을 경험하는데 천부적으로 상황을 읽어낸다. 음화의 시각으로 본 근대 건축물은 다 기본 자재 요소로 나타난다. 지폐도 근대 경제활동의 매개체고. 근대의 소비적인 욕망을 양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이자 매개체. 잉크는 근대의 인쇄매체. 이만큼의 근대를 한 문장 안에 다 압축시켜 버렸다. 이상의 포즈 이면에는 정교하게 잘 짜여진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회로들은 잘 읽혀지지 않았다. (이 다섯 가지는 근대 그 자체)

근대문명의 기초재들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표현. 이 정오는 여느 날의 정오가 아니라 문명의 정오, 그 안에 서 있는 화자를 각인시킨다.

‘날개’의 의미는? 텍스트 안에 표기가 되어 있다.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 =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

즉 날개는 희망과 야심이다. 텍스트 안에 잘 들어 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희망과 야심이 다시 생기기를 바람. 너무 절망적이지.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인데. 여기서 날자고 하는 건 희망적인 얘기가 아님. 아내와의 관계는 그따위고, 나는 어디 갈지 모르고.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내포한 건 아닐까.

5. 결론, 그리고 ‘꾿빠이’

1) (테잎이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상채기도 머지않아 완치될 줄 믿소.)

2) (그 포오즈의 요소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나 모르겠소.) 🡪 자신의 서술을 대상화함

괄호를 쳐놨다. 왜? 밖의 진술과 구분하려는 표시. 어조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같은 화자. 그런데 왜 괄호? 도입부를 서술하는 상황과 괄호내를 서술하는 상황이 다르다는 표시.

‘테잎’을 주목해 보자. 테잎이 끊어지면 피가 나?

테이프는 릴덱 롤에 감겨 있는 녹음 테이프. 서술행위에 가장 근접해진다. 그럼 두 가지 서술상황이 나온다. 날자날자 하고 서사상황이 끝나고 서술상황이 시작됨. 사건시간 후에 서술시간이 있지만 실제 담론은 역전돼 있음. 도입부 이후 33번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테이프가 있다면 또 다른 서술상황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녹음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

괄호 부분은 본문의 서술이 종료된 후에 그 본문을 원고로 삼는 녹음의 상황이 존재한다는 암시를 한다. 괄호 내 말은 일종의 애드립. 원고를 녹음하던 화자가 그 당시에 한 말인 것. 구분하려고 괄호를 쳐 놓은 것. 이 녹음의 상황은 너무 감춰져 있어서 안 보인다. 그런데 툭 튀어나온 이 이상의 본심. 대본에 없는 짤막한 말. 이상의 자기위조 없는 말. 몇 겹 뒤에서 우리는 아주 진지한 이상을 발견한다. 자조, 비아냥, 실실대는 이상이 아니라 진지한 표정을 본다.

언어=테이프, 끊어지면 피가 난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쓴 소설이다. 이게 이상의 본심이다. 위조 포즈 가지고 떠벌리던 화자가 진실하게 이야기한다. 날개는 내 혼신을 다해서 쓴 소설이라고.

자기가 써놓은 글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 녹음테이프=자신의 소설, 언어가 끊어지면 피가 나니 그 안에 피가 통하고 있다는 의미. 진심어린 고백이다. ‘내 소설 최고!’

‘상채기’는? 이상 마음의 상처. 아내와의 비극적인 동거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처들. 서술하면서 그 상처도 낫겠지 뭐…

‘꾿빠이’ : 녹음까지 끝나면 안녕이라는 것. 사건 – 서술 – 녹음이 끝나면 굿바이. 그 말 속에 화자의 행방이 암시되어 있다.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쓴 문장인 듯.

자살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까닭은, 이 릴덱이 재생되는 순간에 이상은 자살하고 없는 것이다. 그런 직관들이 이루어 낸 오독. 사람들의 직감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증거는 잘못되었지만(날자 날자) 화자가 자살했다면 그 시점은 이 녹음 테이프가 제3자에 의해 재생될 때이다.

텍스트는 자살을 확정하지 않는데, 이 ‘꾿빠이’가 자꾸 자살, 작별인사를 연상하게 한다.

황순원의 「별」 「독 짓는 늙은이」 「소나기」

1.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에 대하여

* 첫 단편소설을 발표하기 전까지 황순원은 스무 편이 넘는 시를 발표했고 두 권의 시집을 간행했다.
* 시인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황순원의 문학적 이력은 그의 단편소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되었다. : 그의 단편 소설들은 서정적으로 여겨졌으니까 관련성 속에서 검토됨.
* 그의 단편소설에서 서정성을 읽어내는 논의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 기존의 논의들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시적인 문체와 감각적인 이미지에 관한 논의
  2. 순수하고 정감 어린 세계에 대한 주제적 지향에 관한 논의
  3. 내성적 작중 인물과 화자의 주관적 서술 태도에 관한 논의

선행 연구의 논의들은 단편소설의 일반론으로 환원함으로써 황순원 단편소설의 개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 단편소설(novelle)과 장편소설(novel)의 변별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단편소설의 특성에 대한 그릇된 전제로부터 선행 연구의 오류는 비롯된다.
* 루카치에 따르면 서정성은 단편소설의 주된 요소이다. : 서정성은 단편의 특징. 단편이 서정성을 가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님. 당연한 것이다. 주관성 때문에 단편은 노블이 될 수 없는데, 그 주관성 중에 서정성이 있다.
* 서정성을 황순원의 단편소설의 개성으로 지목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격이다. : 서정성은 황순원 단편의 특징이 아니라 단편 소설 자체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본질적인 문학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서정성은 단편 소설 일반의 보편적 특성.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음.
* 서정성을 황순원 단편소설의 특징으로 보는 시각에 전제된 소설의 일반론은 엄밀하게 말해 노블, 다시 말해 장편소설의 일반론이다.
* 단편소설은 서정성에 의해 장편소설과 구별된다.
*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을 지적하기 보다 그것이 지닌 고유한 개성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고찰해야 한다. 🡪 이렇게 해야 진정한 황순원의 서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가 지닌 서정성의 특수성을 보아야 한다.

2. 주술적 초월의 의미

* 황순원의 첫 단편집 『늪』은 과도기적인 양상을 띤다. 시적인 인식과 방법이 관성처럼 남아 있는가 하면 소설을 향한 충동이 꿈틀거린다.